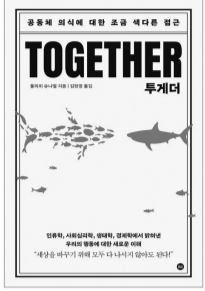


# 환경·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공동체 의식'

## 투게더

울리히 슈나벨 지음, 김현정 옮김



지난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일이다. 한 뺑집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다. 뺑집을 운영하는 가족이 친구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뺑집으로 달려와 모래주머니를 쌓고, 일렬로 서서 물이 담긴 양동이를 전달했다. 비가 그치고 수위가 낮아지자 제빵사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빵을 구웠다.

평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위기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는 까닭은 뭘까? 독일 과학 저널리스트 울리히 슈나벨은 신간 '투게더'에서 10개 장으로 나눈 재난상황에서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공동체 의식'에 대해 살핀다. '공동체 의식'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센수스 코무니스'(Sensus Communis·공동 감각)에서 파생했다.

저자는 서문에서 뿌리 네트워크를 결성해 어떠한 거센 폭풍우에도 살아남는 '자이언트 세퀘이아'를 예로 들며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동할 때 더욱 큰 기쁨을 얻곤 한다.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즐길 때처럼 함께 일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너로 인해 내가 된다"라는 문장으로 압축했다. 저자는 '고독한 천재'라는 선입견을 주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다른 물리학자들과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상호작용에서 천재성도 생겨났다고 본다. 27년 동안 독방에



사회양극화와 환경문제 등 위기 극복은 '공동체 의식'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날 초 총 55억3000만원(109.3도)을 모금하며 마무리한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감했던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또한 동료 수감자들을 통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 위대한 과거의 손길과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대의의 힘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저자는 "우리의 성공적인 진화는 무엇보다 뛰어난 집단 지능과 협력적 사고가 도움이 된 덕분이다"고 밝힌다. 180여 종의 영장류 가운데 유일하게 호모사피엔스의 인지위가 발달한 까닭은 '공동 관심'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유인원은 왜 요리를 하지 않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미국 아이오와주 노보 침팬지의 요리 실험 결과 유인원과 호모 사피엔스의 결정적 차이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 능력과 이례적으로 강한 사회적 결속'이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문화적 지능과 협동적 사고력 때문이다. 동시에 인간의 사고와 의식은 이러한 끊임없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비로소 우리를 지금의 인격체로 만들어 준 것이다."

자칭 '공동체 의식'은 나치와 차우셰스쿠와 같은 독재자에 의해 약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확고하게 만들려했고, 차우셰스쿠는 잘못된 인구정책에 의해 태어난 10만여 명의 고아들에게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았다.

저자는 10장 '작은 우리에서 큰 우리로-공동체 의식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제안한다. '의무적 사회봉사의 해' 제도를 도입한 독일 사례가 돋보인다.

무엇보다 '초사회적 존재'인 인류는 전염병과 기후변화, 환경문제, 사회 양극화라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든 위대한 일은 '나'라는 개인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뜻이다. 그래야 개개인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에너지가 발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경을 초월해 인류 전체에 놓인 과제에 직면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디 이니셔티브·2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운 책

▲헤르만 헤세의 나로 존재하는 법=그 동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던 헤세의 미반역 원고부터 '황야의 늑대', '데미안'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담았다.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헤세도 반항심 가득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문학의 길에 접어들고 사유를 확장하면서 진정 '나로 존재하는 법'을 고민해 온 그는 각자의 개성을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알(한계)을 깨고 나오는 방법임을 알려준다. <뜨인돌·2만2000원>



▲생태시민을 위한 동물지리와 환경 이야기=흥학은 왜 전기자동차를 미워할까, 앞으로도 바다에서 산호를 볼 수 있을까. 흥미로운 질문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18종의 동물을 소개한다. 아마존강 돌고래부터 캥거루, 백로, 북극곰을 비롯해 야크, 청어, 유럽들소와 라콘까지 이름만 들어도 신비로운 동물들의 생활 환경과 생존 실태 등을 이야기하고 공존 방법을 모색한다. <올리코스터·1만7600원>

▲간디 평전=간디에 관한 사실 중에서도 가장 잘못 알려진 것은 간디가 그저 비폭력주의자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비겁한 자들이 외치는 비폭력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주도하며 근대 서양 문명 자체를 파업하지는 대항의 정신을 강조했다. 간디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가 주장한 '사티아그라하'라

는 비폭력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정신을 살펴본다. <들녘·2만원>

▲다정한 수학책=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를 쉽고 재밌는 스케치를 통해 알려준다.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저마다의 내면에는 그 내적 필요성과 흥미가 있을지 모른다. 매듭이론, 퍼지 논리, 펜로즈 패턴 등 어려운 이론들부터 잘 알려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게임 이론 등을 300여 개 스케치로 풀어내면서 수학적 흥미를 자극한다. 코니히스베르크의 다리와 같이 어렵지만 흥미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학 이론, 비유를 통해 기하학처럼 이상에 자리잡은 수학 이론도 소개한다. <해피북스·2만원>

## 어린이·청소년 책



▲캠핑카 사이언스 동물 탐험 편=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네 가족, 막상 캠핑에는 합정이 있었는데 아무도 행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내비게이션에 입력해 둔 목적지를 따라가며 알쏭달쏭한 미션을 수행한다. 유튜브버저 과학자인 삼촌의 과학 지식은 동굴을 탐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굴의 모습을 보여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 <북멘토·1만5000원>

시하며 문해력에 도움을 준다. 글쓰기의 노하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 객관안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해피북스·1만6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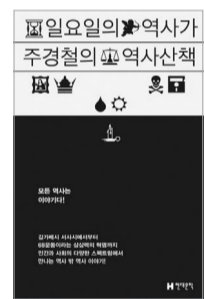
▲관찰력 수업=자녀가 왜 문해력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분석한다. 표현력과 어휘를 기르는 방법으로 오감 관찰 작문법, 동전 관찰 작문법을 비롯해 '폴리메르제르바' 관찰 작문 등 재미있는 스텝들을 제

▲메멘과 모리='메멘과 모리와 작은 접시', '메멘과 모리와 지저분한 눈사람', '메멘과 모리와 시시한 영화'. 세 편의 이야기가 아기자기한 그림과 함께 동심을 자극한다. 이성이 앞서서 누나 '메멘'과 감성과 동생 '모리'가 삶을 성찰하고 이야기 나눈다. 현실과 이상이 달라 고통스러울 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서로에게 가르쳐준다. <김영사·1만5800원>

# 문화와 예술로 들여다본 '역사 밖 역사' 이야기

## 일요일의 역사가 주경철의 역사 산책

주경철 지음



평생을 사료와 논문에 둘러싸여 있는 역사학자도 일주일에 한 번쯤은 '다른' 세계를 탐색하고 싶다. 주경철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는 풍요로운 문학과 예술을 곁에 두고 싶어한다. 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들을 천착하여 인간과 사회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동시에 그 내밀한 속사정을 읽으려 하는 점"에서 역사와 문학은 서로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히스토리(history) 역사 스토리(story)의 일종"인 셈이다.

주 교수가 펴낸 '일요일의 역사가 주경철의 역사 산책'은 역사적 사건, 인물, 문학, 예술 작품 등을 텍스트 삼아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지난 2007년 발간된 '일요일의 역사가'의 개정 증보판으로 4편의

글을 추가해 모두 15편의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책에는 삶과 죽음을 관조하는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일본 근대화의 숨은 영웅 나카하라 만지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19세기 사회주의를 상반된 시선으로 바라본 작가 벨라미와 모리스, 그리고 20세기 현대사회를 변화시킨 상상력의 혁명 '68운동'을 다룬 글이 새롭게 실렸다.

'대항해 시대', '문명과 바다' 등을 통해 탁월한 스토리텔러의 면모를 보여준 저자의 장기는 이번 책에서도 여전히 발휘된다. 그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바카이', 맥 시코의 성화 '고달루페의 성모', 조셉 콘래드의 '암흑의 핵심' 등을 통해 제국주의의 횡포와 인간의 악행을 들여다보고,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계몽주의 시대 사랑의 철학자'였던 카사노바(1725-1798)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롭다. 1960년에 가서야 완벽본으로 출간된 그의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색한' 이미지를 넘어 카사노바가 문필가, 모험가, 지식인, 궁정인, 여행

가, 노름꾼으로 당대의 사회 질서를 조롱하고 그것을 뒤엎든 계몽주의 시대의 자유인이었음을 보여준다.

인간의 광기가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 지 묻게 만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작된 3편의 영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감동적이고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지만 '역사적 성찰'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원들러 리스트', 홀로코스트 관련자들의 9시간30분에 이르는 인터뷰를 엮은 클로드 란츠만 감독의 '쇼아', '홀로코스트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문제'임을 직시한 알랭 레네 감독의 '밤과 안개'다.

그는 또 프랑스 '68 혁명'을 "비록 새로운 질서를 당장 창출해내지는 못했으나 딱 막히고 억압적이고 퇴행적인 기성세대에 균열을 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 68 운동 이후 일상 생활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됐다. '상상력의 혁명'은 결국 세상을 바꾸었다"고 말한다. <현대문학·1만8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